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7월 5일 (제 1365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초심으로 돌아가자

지난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일 3부 예배 때 한 시간 기도시키고, 두 시간 찬송과 말씀으로 부흥회처럼 인도했다 예배가 끝난 뒤 많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 “목사님, 지난주 예배를 통해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무너졌던 신앙과 삶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우리 삶과 신앙에 왜 문제가 생길까? 그 이유는 초심(初心)을 잃었기 때문이다. 손녀에게 자동차를 사준 적이 있다. 처음에는 먼저 하나만 물어도 곧바로 두고, 작은 흠집에도 마음을 쓰며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예전 같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처음의 감격과 설렘이 식으면 관심도 줄어들고 정성도 사라진다.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직장에 불만이 쌓이고 일을 대충하게 되는 것도, 신앙이 식어 예배와 기도가 형식이 되는 것도 결국은 처음 마음, 곧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첫사랑을 잃으면 남는 것은 이별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주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하셨다.

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를 잃어버렸던 예수의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면 된다.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자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그 자리,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첫사랑은 추억담이 아니라 평생 간직할 현재의 사랑이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자. “주여 우리는 지금 왜 왜 사랑이 식어만 가나요/ 그날의 아픔을 감싸주던 첫사랑/ 어디로 떠나 멀리 사라지나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식어간 첫사랑 다시 피어나게 하옵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우리의 첫사랑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난 2014년, 우리가 서울시청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하려고 광고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는 각종 SNS를 통해 성회 일정을 광고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통해 들어오는 반응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상황인데 왜 시청광장에 나가냐며, 좀 조용히 자숙할 때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가 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 본연의 역할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올해 제자들에게 지방집회를 각 지역에서 준비하라고 독려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 앞에 갑니다. 내 나이 팔순을 바라보며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120세까지 살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나도 건강에 유념하고는 있지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주 앞에 적신으로 서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피

고 기쁨치듯이, 언제나 적이 오면 응사할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강조하고, 내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영·혼·육의 부유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나는 곧 있을 수련회, 기도원 산상집회,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및 아르헨티나(Argentina) 집회, 그리고 천안, 청주, 부산 등 지방집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생명령에 따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2014 평화통일 기도성회, 서울시청광장)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그 많은 부흥집회들이 눈을 찢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회가 정치화되는 안타까운 현상들만 보입니다. 목사님은 지난 주일, 아주 작심하신 듯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40년 넘게 부흥사로 전국과 전 세계를 메주 밟듯 다니시며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쳐오신 분이기에 그 누구보다 당당히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 땅에 복음 전할 장소가 난다면 대대적인 집회를 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이 길다고 세상 풍조를 따라 인스턴트 예배가 횡행합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세상일에 더 골몰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복 받길 바랍니다. 이게 다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싫죠.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고 영이 피폐해져서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만의 지하니 어둠으로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불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기도에 힘쓰며 무딘 철 연장을 갈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날이 시퍼렇게 깔고 닦고 기름치고 조여야 합니다. 병사들이 총기를 매일 닦

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보여주며 구원의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다 주 앞에 서는 날, 나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나를 자랑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려도 우리의 참된 꿈을 위해 오직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7.27(월)~29(수)

청년대학부 7.30(목)~8.1(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2:1~11)

은사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자동차를 왜 샅니까? 차고에 잘 모셔두려고 샅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차는 편하게 타고 다니려고 샅니다. 만일 비싼 차라고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타?’ 하며 몇 년 동안 세워만 두면 배터리는 방전되고, 엔진은 굳고, 곳곳에 녹이 슬어 결국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잘 보관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건강하고, 멋지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은사로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고인 물이 썩지요? 쓰지 않는 은사도 녹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딤후1:6)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둔 종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받았으면 사용해야지요. 돈을 찾으면 필요한 것을 사서 풍요롭게 살아야죠. 화장품을 받았으면 예쁘게 치장해야죠. 연장을 주었으면 활용해야지요. 무기를 찾으면 적을 무찔러야죠. 돈을 찾는데 먹지 못해서 비실대고, 화장품을 찾는데도 껌뻑하고, 좋은 연장과 장비가 있는데도 힘들게 손으로 일일이 하고 있고, 무기를 찾는데도 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나의 영·혼·육을 점검하자
점검부재가 사고원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보물상자입니다. 그 보물상자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고전 12:8~10).

이 은사를 사용하니 범인(凡人)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구변에 막힘이 없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손을 내밀어 귀신을 쫓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불치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합니다. 야외집회 때 비가 오면 비를 멈추고, 올림픽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태양이 작열할 때 ‘구름아, 태양을 가

려라!’ 명령했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선물로 다 받았습시다. 그런데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그것을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같은 갑질에만 쫓아두면 녹이 슬고, 악기는 케이스에만 넣어두면 소리가 둔해집니다. 근육도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머리로 쓰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그렇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살아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쇠퇴합니다. 은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은사도 주어졌을 텐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주신 은사를 간직만 하다가 다 녹슬게 합니까? 은사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고, 귀신을 대적해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써야 역사합니다. 움직여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앓은뱅이를 향해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앓은뱅이가 일어나 뛰었습니다. 베

로가 받은 성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믿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물도 파내야 마르지 않고, 작은 웅덩이도 계속 흐르기에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성령의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녹이 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 우리 교인들은 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다 녹이 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마음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첫 마음

이 식었다는 것은 결국 성령충만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수시로 내 영·혼·육을 점검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살펴야 합니다. 녹슬면 결국 귀신의 밥이 될 뿐입니다. 불이 꺼져 껌껌하면 도둑이 틈타듯, 성령의 불이 식어 버리면 귀신이 지체 없이 들어와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막9:29). 그런데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길을 찾게 하시고, 이리 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1:25).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에 지지 말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줍시다.

“무던 쥔 연장 날을 같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 모두 천국생활하자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수시로 내 영·혼·육을 점검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살펴야 합니다. 녹슬면 결국 귀신의 밥이 될 뿐입니다. 불이 꺼져 껌껌하면 도둑이 틈타듯, 성령의 불이 식어 버리면 귀신이 지체 없이 들어와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막9:29). 그런데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길을 찾게 하시고, 이리 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1:25).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에 지지 말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줍시다.

“무던 쥔 연장 날을 같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리더의 중요성

목사님의 저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에 첫 장을 열면,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며, 양이 이끄는 사자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보며 아주 격한 공감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역대 최고의 팀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던 조선 수군은 남해를 굳건히 지키고도 남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조선 수군을 이어받은 원균이 지휘할 때는 궤멸적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장수를 쓰지 못하는 무능한 지휘관 아래에선 절대 전쟁에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난 40년을 지나오며 무수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굳건히 성장하며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장판 교에 선 장비처럼 강력한 독심으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이 교단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격에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더 공격적으로 전도 집회를 열어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성경이 사실

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외쳐오셨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하고 되하며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조직화 되도록 만드십니다. 빨간판 잡언으로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것 또한, 아주 각인효과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여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리드하시는 겁니다.

죽을병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로 찾아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죽었냐? 왜 좌절 낙담해? 나는 다른 방법을 몰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라!”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간절히 기도해주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죽을병에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과 지도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가 국가나 기업 등 모든 조직의 성과와 나아가 존폐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유능하고 든든한 리더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매사 최선을 다합시다.

henry Han

:: To Be Succeeded ::

믿음의 승리하는 신앙생활

딸아이가 벌레에 물렸는지 한쪽 팔이 심하게 부었다. 약을 발랐는데도 이틀이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마침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는 믿음의 간증을 듣고, 주일 아침 교회 가는 길에 딸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함께 기도했다. 세 시간쯤 지났을까, 예배를 다 드린 후 딸아이가 달려오더니 소리치며 보여주었다. “엄마, 다 나왔어요!” 놀랍게도 약을 발라도 빨갛게 통통 부어있던 부위가 몇 시간 만에 싹 가라앉고 흔적만 남아있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했다.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은 모두 고침을 받고 구원받았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를 거라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와 고침을 받은 혈루증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멀리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곧바로 하인이 나음을 입을 거라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온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다.

그렇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통해 강인하고 민첩하게 단련되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고 작은 상황들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신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세게 들고 악한 것들의 화전을 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능히 승리케 하기 위함이고, 또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와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산등성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 생각과 시선을 상황이 아닌 주님께 고정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신다(히12:1~3).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탄식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국진 사모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재미!

지난 6월 27일 노랑진교육관 소성전에서는 이시대 목사님을 모시고 청장년부 총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젊은 가정들을 위해 목사님께서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재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삶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멀리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을 때 환경과 주변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감사와 자신감을 빼앗고, 남 탓은 성장의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시작점’을 주셨음을 믿고, 문제 앞에 남 탓이 아닌 나의 변화와 성장을 고민할 때 비로소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작하고 부딪쳐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수영은 물에 들어가야 배울 수 있듯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벽을 만나면 벽을 넘고, 계속해서 임계점을 뛰어넘다 보면 이제는 벽을 기다리는 성공자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부정적인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주변에서는 늘 ‘안 된다’, ‘늦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부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청장년 가정들은 바쁜 일상과 육아, 경제활동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금 돌아보며,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교회 창립 25주년입니다!

올해 6월 15일, 우리 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큰 기쁨과 기도 응답, 엄청난 돌파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흔들림과 슬픔, 고난과 시련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초석 목사님과 예수중심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초석 목사님께서 슬라바(Slava) 목사님과 함께 개최하셨던 모든 대집회들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집회 기간 동안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던 해방의 역사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격려해주신 이초석 목사님의 모든 설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수많은 말씀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셨으며, 우리는 목사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의 장녀 루다



:: 일본에서 온 편지 ::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손길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스승을 따라가면 지혜로,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로.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됐으며,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깨끗하게 공사한 새 성전으로 이사하고 보니 강단의 십자가가 오래돼서 잔잔한 상처가 눈에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로 장만하려고 성구사를 하시는 장로님을 잘 아신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한 십자가에 눈에 보이는 잔잔한 구멍이 무려 14개나 있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또 너무 비싸 그 강단 십자가를 바꾸려고 헌신하신 권사님이 식당에서 일주일에 삼사일을 일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장로단 직책을 가진 분이 돈에 눈이 멀어서 십자가를 멀리 일본이라고 아무거나 팔아넘기신 것입니다. 가격을 지불하

권사님의 헌신을 그냥 뭉개버릴 수 없어서 다시 찾아 보니 이전 것과 같은 것으로 훨씬 저렴하게 구했으며, 정결하신 믿음의 권사님 아드님의 손길로 주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작은 가시가 온몸을 찌시게 할 수도 있으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햇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훔쳐 작은 죄악들이 온유한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큰 성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은 작은 여우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것으로 교묘하게 미혹하며 공격합니다.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 아래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는 않는지요? 작다고 우습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혹시 지금 내 포도원에는 작은 여우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죄를 고집한 사울 왕의 선택도, 예수를 팔아 넘겼던 유다의 선택도,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꺾지는 않습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의 길로, 욕심의 길로 안내합니다. 내 속에서 죄 된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팔아도 되는 죄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안과 편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편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함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탄은 편안하고 재미있는 길로 미혹합니다. 육체의 편안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주님 밖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유혹하는 가짜입니다.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재미있는 삶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참된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 살맛 나는 삶을 사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14:27).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상처는 모래에, 은혜는 돌판에 새기라

“충성! 회의 준비 끝!”
장교, 부사관, 군무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에서 매년 하던 대로 부대장님께 대표로 경례했습니다. “정 중위! 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 부대장님께서 대뜸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이 업무 보고를 하자 심하게 꾸중하시고, 끝으로 모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한번 더 역정을 내신 후 자리를 뜨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군인의 기본에 대해 지적을 받으니,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하던 일이라고 긴장을 늦추었던 건 아닌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후 선배 장교가 제 편을 들며 팬찮냐는 눈빛으로 접근하자,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혹시라도 부대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를 떠나 파견 훈련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깊은 지하 병커나 야외 텐트 생활을 하고 밤새워가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고생해야 했기에 그 임무를 담당해야 할 장교조차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에 저를 지목한 것입니다. 담당 장교가 아님에도 이후 모든 파견 훈련은 저의 몫이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초급 장교가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려니 심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고생이 컸던 만큼 성장했지만, 그곳에 보낸 부대장님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누군가가 다가와, 부대장님에 대한 불평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도 동조하지 않고, 곧바로 대화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한 고생을 했더라도 부대장님께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대장님에 대해 잠시 서운했던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부대장님은 강하고 엄격한 분이려도 어려웠지만, 그와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고 시인한 대로 저를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전입 환영 회식에서 부대장님이 처음 술잔을 권했을 때, 크리스천이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거절했던 저를 오히려 대단하다고 추켜세워 주셨기에, 이후 회식 때마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서투르던 때에도 열정을 기특하게 보시고 표창장을 주실 정도로 늘 아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대장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얼마 후 저는 파견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부대장님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그분에게 그 훈련이 처음이었던 탓에 제가 경험자로서 도움을 드

려야 했습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그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어느새 전역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혜 입은 모든 분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끝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는 병과 역사상 갈 수 없었던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저는 기도도 그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순간의 서운함 때문에 그가 베푼 은혜를 잊었다면, 미움과 원망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둔 채,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예비하신 훈련의 시간들을 헛되이 지나쳐 버리고 마음을 넓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수많은 기억을 남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라고, 감사는 삶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지만, 상처를 움켜쥔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이 자라고, 미움과 원망은 삶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상처는 모래에 써서 바람에 날려 보내고, 은혜는 돌판에 깊이 새겨 오래도록 간직하는 건 어떨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추억일 테니 말입니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3:13).

정명관

:: 귀를 기울이세요 ::

젠슨 황도 열심히 사는데

얼마 전 대한민국에 세계 시총 1위 미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방문했다. 그의 방문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기간 내에 다양한 광복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의 4박 5일 일정은 이랬다. 첫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홍대의 IT 베이스캠프를 찾아 페이커 및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과 삼겹살 회동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유명한 토크쇼 ‘유크즈’ 방송녹화를 진행하고, 셋째 날에는 잠실야구장에서 시구를 하고, 그 후에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크래프톤 장병규 회장을 만났다. 넷째 날에는 LG, 현대자동차,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였으며, 직원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점심으로는 평양냉면을 먹으며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회동했다. 저녁에는 삼성전자 DS 부문장, 정부기관 사람들, 로봇 스타트업 대표 등 십여 명을 만나며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출국했다.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빡빡한 스케줄을 본인이 다 요청해서 한 것으로 그는 이 순간을 진정 즐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보도된 젠슨황의 열정적인 소화능력을 접하고, 저마다 “세계 시총 1위 그룹의 총수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반성했다고 한다.

그렇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명작은 열정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신다. 젠슨 황은 AI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열정이 있기에 반도체의 나라 한국에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지금도 주 7일을 일하고 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최근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신 멕시코 해외 선교에서 열정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셨다.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프론테라, 몬테레이까지 광복 행보를 보여주셨다. 최근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바라본 멕시코의 날씨는 38도가 넘는 더위와 폭풍 찌는 습도가 폭력적이다. 저런 곳에서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 설교하시고, 안수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라는 반성이 절로 나온다. 이처럼 우리도 총회장 목사님처럼, 젠슨 황처럼 열정을 보여 보자. 그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명작이 될 것이다.

송현혜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